

국토교통부, “부천대장-홍대 광역철도 연내 조기착공”

- 18일 사업 시점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현대건설과 실시협약 체결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6월 18일 오후 사업시행자인 (가칭)서부광역메트로 주식회사(대표사 현대건설)와 대장-홍대선 광역철도 민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.

○ 대장-홍대선의 시점인 홍대입구역 인근의 회의실에서 진행된 실시협약 체결식*에서,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과 현대건설 운영준 사장이 실시협약서에 서명하였다.

* (정부) 국토교통부, 한국교통연구원, 국가철도공단 (사업자) 현대건설, 우리은행, KDB산업은행

□ 대장-홍대선은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지구와 서울 2호선 홍대입구역까지 20.03km를 운행하며, 시점에서 종점까지 총 27분이 소요된다.

○ 국토교통부는 작년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100차례 이상 협상을 통해 사업의 세부조건인 실시협약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였다.

○ 이후, 지난달 8일 열린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실시협약 내용이 의결되었다.

□ 대장-홍대선 추진으로 부천시·강서구·양천구 등 수도권 서남부와 고양시·마포구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철도 사각지대가 역세권으로 탈바꿈하는 등 도시의 공간구조가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.

○ 특히, 올해 말 착공하여 '30년 말 개통하면 대장신도시 준공과 철도 개통 간 시차를 최소화할 수 있어, 신도시 입주민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.

□ 대장-홍대선은 최근 15년간 추진해온 민자철도사업 중 진행속도가 가장 빠른 사업이다. 그간 민자철도는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착공까지 통상적으로 6~7년 이상 소요*되었으나,

* 예비타당성조사 착수~착공 : 대곡~소사선 6년 6개월, GTX-A 7년 6개월

- 대장-홍대선은 '21년 2월 민자적격성 조사(민자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) 부터 실시협약 체결까지 3년 반 만에 추진되었다.
-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와 협력하여 실시설계 등 후속절차의 속도를 더욱 높여 당초 내년 3월로 예정한 착공(실시계획 승인) 일정을 올해 말로 앞당길 계획이다.
- 또한, 대장-홍대선은 철도사업의 운영 리스크를 낮추고, 이용자 부담도 절감하는 BTO+BTL 혼합형 방식*을 최초로 도입하는 사업이다.
 - * 민간투자비를 BTO(Build Transfer Operate)의 경우 요금으로 회수하며, BTL(Build Transfer Lease)의 경우 시설임대료로 회수하며, BTO+BTL의 경우 요금수입과 시설임대료로 회수함
- 원종역을 건물형 출입구로 설치하면서 건물 상부에 청년임대주택 60호를 공급하여 청년들이 초 역세권에 거주하는 부대사업도 추진한다.
- 국토교통부는 대장-홍대선의 부대사업을 모범사례로 추진하여, 후속 민자철도사업에서도 부대사업을 적용하는 마중물로 만들고, 업계에서도 부대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재정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과 지원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.
-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“당초 내년 3월이었던 착공(실시계획 승인)을 올해 말로 앞당기는 등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”이라며,
 - “신속한 사업추진과 함께 안전한 현장관리를 최우선의 가치로 추진해 달라”고 당부하였다.

2024. 6. 18.

국토교통부 대변인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명 : 대장~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(*주무관청 : 국토교통부)
- 사업위치 : 부천시 대장신도시(3기) ~ 서울시 마포구 홍대입구 일원
- 사업방식 : 혼합형(BTO+BTL)
- 사업규모 : 연장 20.03km, 정거장 12개소
- 총사업비 : 2조 1,287억원
- 사업기간 : 공사 72개월 / 운영 40년

□ 추진경과

- 2022.09 : 제3자 제안공고
- 2023.02 :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(현대건설(주) 컨소시엄)
- 2024.04 :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완료
- 2024.05 : 기재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완료
- 2024.06 :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

□ 향후 추진계획

- 2024.12 :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

□ 노선도(안)

